

“부처님 공덕 자비등불로 밝혀요”

전라북도 봉축위 구성... 광주 19·20일 장엄등 점등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호남지역 봉축분위가 무르익고 있다.

3월 2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지역 각 종단과 사찰, 신행 포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불기 2553년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금산사 주지)를 구성하고 4월 3일~5월 2일을 봉축기간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의 봉축 분위기는 4월 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행사에는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보문종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바리합창단 등 각 신행단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은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고자 모인 수승한 공덕을 찬탄한다”며 “이웃들이 나와 한몸으로 느껴질때 만이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니 잘못된 분별심과 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고 가정마다 우리 불자들이 하나되어 허공처럼 둥빈 마음으로, 언제나 환희로운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포교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포교 강화 일원으로 임실탄약장 군법당에서는 수계식이 봉행된다. 9일에는 육군35사단 세병호에서 연등제가 열렸다. 19일에는 전북경찰청 불자들이 무진법회를 봉행하고, 익산의 부사관학교와 공군 38전대, 공수7여단 등에서도 봉축 위문법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주·군산교도소에서는 각각 수계법회와 봉축법회

를 봉행한다.

이어 봉축기간 동안 금산사 복지원을 비롯해 회강원, 군산보현요양원, 나눔의 집, 요양원, 갯생원 등 복지시설에서도 봉축위문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22일에는 전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지역 각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 연등축제는 전주지역이 25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익산과 군산은 26일 영등동 중앙체육공원과 나운동 신봉초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광주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마하보리사 주지)는 19, 20일 각각 아시아문화전당과 시청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점등식을 갖는다. 아시아문화의 전당 앞에는 10m 높이의 한지로 만든 석가탑등이 세워지며, 시청앞에는 6m 높이의 한지로 만든 아기부처



4월 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점등된 기원탑.

남등이 세워진다.

광주봉축위 관계자는 “봉축탑을 한지로 만들고 방수처리를 해 전통등의 풍미를 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구례사암연합회는 구례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봉축연등 점등식을 갖고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곱단이로 목욕하고 건강하길...”

성호 스님 천연목욕용품 복지시설에 보시

유아용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천연목욕용품 브랜드 ‘곱단이’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성호 스님(극성 무각사 주지)이 지역영유아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자비의 온정을 베풀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호 스님은 4월 9일 광주영아일시보호소(지부장 김재영)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현비동산, 자비요양원 등에 300만원 상당의 천연 유아

용품을 전달했다.

성호 스님은 전달에 앞서 “부모로부터 한 번 버려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사는 아이들이 피부병과 환경공해로부터 두 번, 세 번 고통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동체대비’라는 생각에 작은 성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용품을 전달받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최미경 사무국장은 “경계가 어

려워지면서 후원과 자원봉사가 줄어들었다”며 “특히 아토피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연목욕용품을 전달받은 광주 소재 동광영아일시보호소는 미혼모, 이혼가족 등의 사유로 버려진 영유아 60여명이 수용돼 있다. 향림원 현비동산과 자비요양원은 각각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로 30명씩 생활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비군승 교육

호국관음사서

광주 31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법사 법상)는 4월 7일 ‘2009년 입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다.

군 포교 담당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에는 후보생 12명과 군승 요원 8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위봉사 일요가족법회 창립 10주년

전북 원주 위봉사주지 발중은

4월 5일 일요가족법회 창립1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한 성은 스님(서울 삼천사 주지)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일요가족법회 회장 이두연 거사를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은 스님은 ‘불교와 중생복지’를 주제로 한 법문에서 “불교의 기본사상인 육바라밀과 사십법, 사무량심

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인 생령존중 사상과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중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일요법회를 이끌어 온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 후 위봉사 대중들은 위봉사 경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생의 삶 실천

지구촌공생회 봉사

해외구호활동으로 주목받아 온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는 4월 4일 김제 흥복사(주지 우진) 연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15명의 단원이 참여해 봉축 연등을 제작하고, 흥복사 도량과 연발의 잡초 등을 제거했다.

우진 스님은 “지구촌공생회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치니 뜻이 깊다”며 “홍보물 몇 장 돌리며 단체를 소개하는 행위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이념 실천이야말로 공생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행진등 강좌

나주 심향사서

전국의 봉축분위가 무르익는 요즘, 전남 나주에서 전통행진등 제작 강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3월 28일 나주 금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전통행진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광주 비엔날레 초청작가이자 전통등공예가인 이기성 작가가 강사로 나선 이번 강습회에는 원광 스님을 비롯한 1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오신날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날이다. 오늘 만든 전통등은 저마다의 희망을 담고, 나주 거리를 환하게 밝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향사는 4월 24일 주제로 제4회 연등음악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운 명사 다비

광주사암연합회장 엄수

호남불교 원로이자 조계종 전제대화상 진금당(眞金堂) 혜운(慧雲) 명사(明師) 영결식 및 다비식이 4월 5일 광주 신광사에서 봉행됐다.

법랍 95세, 세수 98세로 원적에 든 스님의 영결식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엄수됐다.

행사에는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삼현문중과 문도동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에 이어 다비식은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 연화대에서 거행되었다. 다비 후 스님의 법체에서는 사리 5과가 출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의호하며 불교여론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사는 언론을 통해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목표로 생활 속의 불교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교정보를 기본으로 불교용품,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불교정보, 각종 이벤트 등 알찬상품들을 언제, 어디서든 가장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현불샵 (HYUNBUL SHOP) 이 앞장서겠습니다.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HYUNBUL SHOP (#)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불국토를 찾아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회단

호남 최초 연회단... 축제를 축제답게

저마다 손에는 전통등을 들고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들쭉이며 행진한다. 한지로 만든 거대한 용 장엄물은 불을 내뿜어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로버트패턴 V 모형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여 개 장엄물과 함께 복잡한 도심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연



2008년 제등행렬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회단.

등축제의 행렬이 비단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빛고를 광주에서도 펼쳐진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2008년 봉축행사에서 호남 최초로 연회단을 선보였다. 선녀 복장에 곱게 얼굴분장을 한 단원들은 매화등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행진했다.

연등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연회단은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무용단이다.

20여 년 전 광주에서 처음 거대한 장엄물을 들고 나왔던 곳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었다. 연

등축제는 불자는 물론 일반시민, 외국인 등이 어우러진 문화화마당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회단의 등장어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즐겁지?” “어느 사람이야?” “그래 이것이 축제구나”하며 시민들은 반겼다. 외국인들은 연신 “Wonderful, Wonderful”을 외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마당 축제가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연등행렬이 있는 단 하루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 날을 위해 연회단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광

주지원 합창단과 청년회로 구성된 34명 연회단원들은 봉축행사 수개월 전부터 날마다 퇴근 후 선원에 모여 고된 연습을 했다. 처음하는 동작들이라 힘들어 부둥켜 울며 연습한 적도 있었다. 한 권에서는 연회단 복장을 수선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무와 행진단이 만들어졌다. 연회단을 구성해 이끌고 있는 지원장 혜월 스님과 단장 성경희 보살을 만났다.

혜월 스님은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바람이 바로 광주지원 연회단의 바람이에요.” 옆에 있던 성경희 보살도 거든다.

혜월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사부대중 모두의 바람처럼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를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